

신뢰 바탕으로 한 동기부여가 '생명'

'사찰경영' 노하우를 본다

아 적도 사찰을 '경영' 한다고 하면 세속적이라며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고객서비스, 문화공간 제공 등 기업경영의 요소들은 사찰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더군다나 수 많은 신도를 확보하고 조직력을 갖춘 대형사찰이 늘어나면서 '사찰 경영'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와 방법으로 모범사찰을 일군 스님들로부터 '사찰 경영'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교육 1시간 교육 위해 20시간 투자

"불자로서의 소명의식을 느끼는 불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신도교육을 사찰 경영의 키워드로 제시하는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 어느 사찰과는 달리 관음사라는 절 이름 앞에 영남불교대학을 붙인 것은 교육에 역량을 쏟겠다는 원력의 표현이다. 그러나 스님이 말하는 교육은 평범한 신도교육이 아니라,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신도교육이다.
우학 스님은 '교육'→'수행'→'봉사'·'회향'으로 이어지는 신도관리체계를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의 두 번째 경영 노하우로 제시한다. 교육을 이수한 신도들은 반드시



우학 스님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수행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하고, 아울러 봉사조에 편성돼 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사찰과 스님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학 스님은 신뢰를 쌓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교육이라고 강조한다. 부처님 말씀에 전하되 현대인의 정서에 맞는 법문과 강의가 교육의 핵심이다. 여기에 사찰 재정을 투명화하고 신도들의 가정과 회사보다 좋은 도량을 갖추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1시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교안을 만들기 위해 20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신도들은 수행활동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는데, 이 점을 어떻게 만족시켜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조직 원력 공유하는 분신 만들어라

"능인선원의 힘은 사람과 조직에서 나옵니다. 원아분 신변진찰(願我分身遍塵刹, 원컨대 나의 분신 퍼져 하소서)의 분신처럼 나의 원력을 함께 공유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핵심인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 능인선원을 22년만에 22만명의 신도를 거느린 대형사찰로 일군 원장 지광 스님. 혼자 힘으로 그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능인선원의 성장동력은 잘 짜여진 조직과 그 조직을 이끄는 중간 조직이기 때문에 신행관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조직도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광 스님

서울 능인선원 원장

간오 하고, '능인등' 10개가 모여 구역법회를 이룬다. 구역법회는 52곳의 광역법회에 소속돼 믿음을 키운다. 이 조직을 지도하는 이들은 중간관리적인 50여 현법사와 60여 정법사들이다. 집중수련과 책임감 부여는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양약(良藥)이다.
지광 스님은 조직에 앞서 신심과 수행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신행관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조직도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업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살려

"사찰이 수익사업을 한다는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도 남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을 하나씩 스님도 아니라 식의 불교계 내부의 비아냥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생산불교'의 선두주자 공주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은 시골마을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절초축제 등으로 관광객을 불러들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이 숙제를 풀었다. (주)영평사식품을 운영하고 있는 영평사는 '장군죽염'으로 출발, 현재 20여명의 직원을 비롯해 40여명의 고용창



환성 스님

공주 영평사 주지

출 효과를 발휘해 지역민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스님들이 '조선'·'청소년 복지' 등에 재투자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식을 털어낸 점도 환성 스님의 경영노하우. 어린이·청소년 등 지역포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신뢰를 꾸준히 쌓는 것이 주효했다.
"스님들이 '조선'을 유지하며 자립경제를 시도한다면 '생산불교' 실현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도들이 스님의 뜻을 바로 알면 든든한 후원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복지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라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는 처음의 이미지가 지금의 수효사를 만든 것 같아요. 요즘 신도들은 기도만 해서선 절에 남지 않습니다. 자주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해요."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은 탄탄한 자원봉사 조직과 활발한 활동으로 복지도파의 모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곳. 17년전부터 서울 아현동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복지에 힘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효림원 원장 무구 스님은 포교당 문을 열면서부터 지역민을 위한 복지활동을 시작했고,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길 때마다 지역민에게 밀반찬, 제수용품, 무료급식 등으로 회향했다.



무구 스님

서울 수효사 효림원 원장

"수효사 신도들은 바쁘고 힘들어서 법회는 못오더라도 봉사활동은 빠지지 않습니다. 애타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빠질 수가 없나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보다 좋은 동기부여는 없는 셈이지요."
교양대학을 복지대학으로 운영하는 것도 수효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수효사 복지대학은 자원봉사인력의 산실인 신도들의 복지마인드를 키우는 요람이다. 무구 스님은 복지대학과 지역봉사로 사회적으로 기여를 중시하는 요즘 신도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부다의 경제학 (13)

필요악?

무기상들이 제철을 만났다. 석유가격이 폭등하면서 중동의 산유국들이 엄청난 오일 달러로 국제 시장의 큰 손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갈등은 그나마 잠잠하던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질렀다. 집단 무기를 앞세운 이스라엘군의 막강한 화력 앞에 레바논은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유가가 폭등해서 중동 산유국들의 주머니에 돈이 쌓여 있을 때면 어김없이 중동에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 자국의 안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중동국가들은 금고를 열어 무기를 사 모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마다 무기상들은 이들 중동국가들에게 무기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곤 했다.
그래서 오일가격의 정진한 수혜자는 무기상과 군수업자들이라는 말도 있다. 이번에도 자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일달러가 두둑해진 중동국가

제철막에 이르기까지 군사력의 열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역사를 가져야만 했다.
군사력이 약해서 불행했던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세계 모든 국가와 민족의 역사가 그랬다. 힘이 약하면 수난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 인간의 역사였고 상황은 지금이라고 크게 변한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힘이 약한 국가와 민족에게 군사력을 확보하게 해주는 군수산업은 필요악인가?
불교의 가르침에 오계가 있다. 그 중에서도 불살생계는 불교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불살생계의 가르침에 따르면 군수산업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군수산업이야말로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가 간의 충돌이 군수산업을 지탱하

군수산업은 강대국들의 경제 지탱의 핵심 생명 빼앗는 행위 불살생계 가르침 어긋나 인간 존엄성 유지 위해 선진국 노력 보여야

들은 첨단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쓰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군사력에서 밀려 철저히 이스라엘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레바논을 보면서 중동의 산유국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군수산업은 전쟁을 막아주어 해를 방지하고 성장하는 산업이다. 국가 간 갈등과 충돌이 없다면 군수산업은 존재할 수 없고 무기를 제조해서 살아가는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군수산업이 경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서방선진국의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 간 군사적 충돌의 배후에는 서방 선진국의 무기상들이 은밀히 개입되어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강대국에게 있어서 군수산업은 자신들의 힘을 생산하는 원천임과 동시에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다.
우리나라도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군수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최근에는 초음속 전투기를 수출할 정도로 우리 군수산업이 발전했다고 한다. 군사력이 약해서 우리 민족이 당한 시련은 한 두 번이 아니다. 멀리는 일진 왜란, 병자호란으로부터 가까이는 일

고 있다. 본질적으로 무기에 대한 수요와 군수산업에 대한 한 국가의 욕심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한 국가만 군비를 축소하려고 노력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군비축소는 여러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자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눈앞에 보이는데도 무기와 군수산업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길이 어렵고 험하다고 해도 군비경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결코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핵확산 금지 조약 등 군비경쟁을 축소시키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협력을 몇몇 강대국들이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국의 경제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통상전략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진실로 세계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다면 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먼저 양보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배경에 강대국들이 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 구병진(경영학 박사)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 mahamall.co.kr 상품문의: (02)732-1520

스텐 물고기 풍경

'스텐 물고기 풍경'은 해인사종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풍경입니다. 섬세한 문양과 독특한 착색방식으로 처리해 색상이 아름답고, 물고기와 체인줄 등을 스텐리스로 제작하여 바람에 쉽게 떨어지거나 녹이 슬지 않는 최고급 제품입니다. 풍경의 표면도 밝고 정교하게 제작하여 한층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풍경은 지름 14cm, 높이 17cm 규격이고, 물고기는 길이 22cm, 높이 9.5cm입니다.

가격 : 1개-12만원, 2개-20만원

수월관음도

가정의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

함께 감탄을 한다. 험한 세상 자손만대로 안녕과 번영을 지키는 불자가정의 수호신인 수월관음도는 조계종 중정상과 대종명상, 한국불교대전 대상을 수상한 불화의 명장인 법계 승려 화백에서 3년간 지도와 영림으로 그린 불화로 100% 천연고급 판화지에 2도 판화와 배틀린 화사들 사용에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줘도 변색되지 않게 제작했으며 최고급 2단 풀콜리우로 거실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조있는 영림의 불화다.

불자가정의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뒷면에 카펫과 불공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 편이 있다. 영림이 나타낸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카펫과 불공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헌정씩 주기도 하고, 세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 등 지난번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 후 진화신령이 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복급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며 집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개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 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림이 시작된다. (가격 19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용어해설

-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모습이 그윽한 연꽃위에 비치는 달처럼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 소재화 (淸災畵) 불교에서 소재화란 모든재난과 고통 액운등을 소멸하고 예방한다는 불화 그림을 말한다.

세로 88cm 가로 58cm

불자가정의가보로 안녕과번영의수호신

무명의 어둠을 밝혀 비취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 사는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애 좋은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소재화다. 소재화인 수월관음도는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번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림이 감탄을 하고 둘째는 섬세

평생 부자지갑

음마니반메흠福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음양의 조화로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노후까지 했으며 지금까지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행통되는 속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동서남북에서 돈을 들어오게 하는 보병과 악귀와 집귀를 쫓고 계획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힘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던 장사가 잘되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 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뜻밖이 걱정하던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에는 비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음마니반메흠 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늘림게 회복된다고한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리드리며 지갑은 우체국택배로 바로 보내준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장지갑 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들짐보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쌓이고, 부부간의 애정은 떨어져,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끊이지 않아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시귀국 가다 락 산중에 계시 때 가난으로 힘겹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음마니반메흠 속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에 늘 답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불경에 일러해 법구를 전권으로 제작하는 카펫라불공사에서 절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음마니반메흠 부자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최고급으로 제작하고 현역가족에 은나